

투데이 칼럼

2025년 을사년 세계경제 전망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가면서 여의도 증권가에 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재테크 전망을 잡치기 바쁘다. 내수 부진 속 맞닥뜨린 탄핵 정국, 교환율 등 약재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 불확실성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다양한 업종의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 섀해 투자전략에 촉각이 곤두선다. 올해 미국 증시에서 우량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 약 21% 올랐다. 높은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부담에도 기업들 실적이 순항한 영향이다. 올해 글로벌 증시도 미국의 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낙관론 입장에서는 “감세·규제 완화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만큼 이를 계기로 미국만 잘 나가는 ‘예외주의’ 현상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본다. 반면 “미국은 가고 중국의 시대가 왔다”는 정반대 의견도 있다. 내년 상반기 미국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해소하는 동안 중국이 강한 부양책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 증시가 주도주 역



정복규
논설위원

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미국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앞으로의 환경도 미국 증시의 이익 추장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될 것인란 의견이다. 우호적인 환경이란 거시경제(매크로) 측면에선 ‘미 중앙은행(Fed) 기준금리 인하’를, 정책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가계 체감경기 개선 가능성’을 가리켰다.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급락은 금리 상승이라는 일반적인 경기 현상보다, 금융위기나 관세전쟁,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발생했다. 이런 이례적 밸류에이션 충격을 제외하면 지수 수익률에는 이익 증가율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이익

기반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미국 증시는 기업 이익이 계속되는 추세다. 당장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이달 초 기준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은 310조원으로 지난 8월을 정점으로 꾸준한 하락세다. 반면 미국 S&P500지수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2조2700억 달러로 지난 8~9월 일시적 감소분을 빼면 사상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지난 한 주는 Fed의 금리인하 속도조절론에 뉴욕증시가 주춤했지만 시장에서 연말연초 ‘산타엘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 매크로와 정책적 상황이 맞물려 미국 제조업과 가계의 체감 경기가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산업재 섹터에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국가 간 의존을 줄이는 ‘탈세계

화’와 해외로 나간 기업 생산기지를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 우위’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 정부는 ‘안정’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 운영 기조를 틀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제시했다. 이제 관심은 3월 열릴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 ‘양회’로 옮겨졌다. 3월 양회에서는 5% 전후의 경제성장 목표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GDP를 2020년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려면 15년간 최소 연평균 4.7%의 성장세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중국 정부의 ‘과감하고 확실한’ 조치야 예상되는 이유다. 나스닥의 주도력은 이미 올해부터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 폭락장세가 펼쳐지면 미국에서만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모조리 체권이나 금으로 옮겨갈 것이다

사설

암울한 전북 경제

전북 경제가 암울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이 현실이다. 암울한 전북 경제를 회생시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는 국내외 불안한 경제 등으로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높았다. 전북은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받은 데다 연말 탄핵 정국으로 골목 상권도 수렁에 빠졌다. 전북에서 처음 열린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에는 재외동포 경제인 등 모두 3천여 명이 찾았다. 이 기간 8천 억 원 규모의 수출 상담, 2만 5천여 건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환율, 고금리, 고불가 이른바 ‘3고 현상’ 속에 수출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수출 비중에서 전북의 IT 산업 비중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수출이 좋아서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을 전북은 누리지 못했다. 올해 초부터 건설 현장에도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중견

건설사인 제일건설이 어음 7억 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대출 잔액은 늘었고 연체율은 상승했다. 민생 경제도 공공 얼어붙었다. 역대 가장 긴 늦더위로 식탁 물가가 요동쳤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까지 사라져 소비자 심리 지수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날씨가 더워 작물 생산도 잘 안되었다. 힘든 해를 보내고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희망이 안 보인다. 전북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1천 6백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골목 상권이 살아날지 미지수다. 민생경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독려해야 할 때이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또 기업 활성화 지원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 올해도 건축 재정과 경기 둔화 전망으로 전북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지난 연말에도 어김없이 전주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났다. 얼굴 없는 천사가 다녀가는 이곳은 ‘천사마을’로 유명해졌다. ‘천사마을’을 모르는 전주 시민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해에는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따뜻한 한 해 보내라고 쓰인 편지와, 8천여만 원을 남기고 떠났다. 천사의 선행은 25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어느 날 오전 9시 26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전화번호 대신 뜬 문구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이었다. 수화기 너머 중년 남성은 자기소개도 없이 “인근 식당 앞에 놓았다”고 말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난 것이다. 천사는 기부를 시작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금요일에 나타났다. 13년 만에 크리스마스

전에 등장했다. 천사는 주민센터에서 300m가량 떨어진 한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옆에 종이 상자를 놓고 갔다. 해당 주민센터 직원들은 “혹시나 또 이 시국에, 다들 어려우신데 천사가 오실까? 기대반, 의심반, 그런 기분이었다.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상자 안에는 5만 원 권 1600장을 비롯해 모두 8천3만 8천 850원이 들어 있었다. “따뜻한 한 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짧은 편지도 함께 있었다. 2000년 이후 해마다 모인 기부금은 어느새 10억 4천만 원을 넘어섰다. ‘천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7천 가구 넘는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줬다. 추운 겨울, 따뜻한 한 해 보내라는 천사의 마음에 감사한다. 한편 전주시는 해마다 천사가 나타나는 이곳을 ‘천사마을’로 이름을 지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알아크사 병원으로 이송되는 부상 팔레스타인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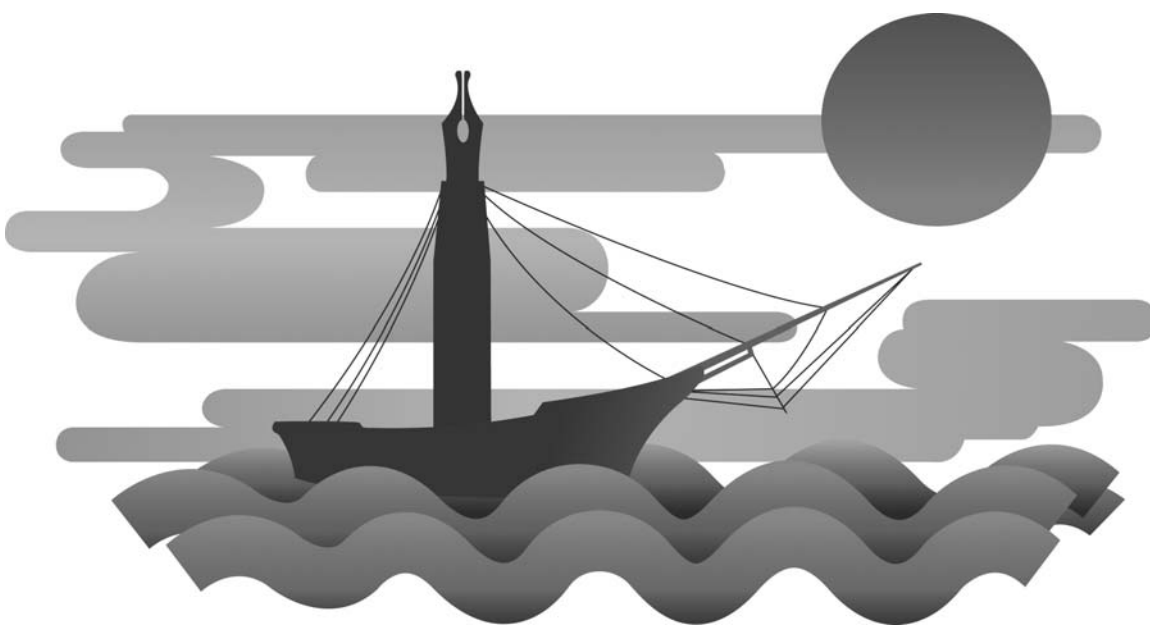


2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 알발라에서 이스라엘의 누세이라트와 마가지 난민촌 공습으로 부상한 팔레스타인 주민이 알아크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차량 돌진 희생자 추모 십자가 설치하는 예술가



지난 2일(현지시각) 미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커널가에서 댈러스 출신의 예술가 로베르토 미르케스가 전날 버번가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십자가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